

배포 2024. 2. 28.(수) 13:00 보도시점 (인터넷) 2024. 2. 28.(수) 14:00
(지 면) 2024. 2. 29.(목) 조간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중앙부처, 교육청, 지자체가 함께 힘 모은다

- 중앙부처 장관 17개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발족
- 3월부터 집중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늘봄학교 위한 교육자원 발굴에 총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29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는 대통령이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2.27.)에서 정부 차원의 늘봄학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발족된 회의체로서, 9개 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장, 17개 시도교육감,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여한다.

* 교육·기재·과기·행안·문체·산업·복지·고용·여가부 9개 부처

이날 첫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장관 등이 모여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발족의 의의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2024년 1학기에 운영할 전국 2,741개 늘봄학교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한다. 특히, 참석자들은 관계부처별 늘봄학교에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 공간, 인력 등을 함께 논의한다.

다음 2차 회의에서는 중앙부처 장관급과 17개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가 참여하여 2024년 1학기 늘봄학교 운영상황을 공유하고, 지역별 지원 상황을 집중 점검, 중앙과 지방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는 3월에는 주 1회, 4월 이후에는 월 1회 개최하여,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늘봄학교는 국민이 원하는 꼭 가야 할 방향이지만 쉽지 않은 과제이다.”라고 하면서,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한데 모으는 것은 물론, 온 사회가 다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제1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계획

담당 부서	교육복지돌봄지원국 방과후돌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예혜란 (044-203-6603)
		담당자	사무관	남윤철 (044-203-6606)
			연구관	안경찬 (044-203-6610)
			사무관	전민환 (044-203-6604)
			사무관	홍용환 (044-203-6535)
			사무관	양준혁 (044-203-7141)

□ **회의개요**

- (일 시) 2024.2.29.(목) 10:00 ~ 11:00
 - (장 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4F 국가교육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대상) 총 20명 내외
 - (교육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차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 (관계부처) 8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저고위 부위원장
- * 기재 · 과기 · 행안 · 산업 · 문체 · 복지 · 고용 · 여가부

□ **세부일정**

구분	주 요 내 용	비고
10:00~10:05	· 개회	
10:05~10:10	· 모두발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0:10~10:15	·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구성·운영계획 안내	
10:15~10:20	· 2024년도 1학기 늘봄학교 준비상황 보고	
10:20~10:50	· 관련 논의	
10:50~11:00	· 폐회	

※ 부총리 모두발언까지 공개 / 상황에 따라 세부일정은 변동 가능